

변화의 동력없다... 새정치 '혁신' 실종

혁신실천위·조강특위 지지부진

野 전유물 '혁신'마저 與에 뺏겨

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이 실종되고 있다. 계파 연합체인 지도부 구도 등을 고려하면 민심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는 변화의 동력 자체가 없다는 비판적인 전망마저 나오고 있다.

우선, 비대위 출범과 함께 야심차게 출범시킨 정치혁신실천위원회가 국정감사 때문에 사실상 '개점 휴업' 상태다.

국회 상황과 맞물린 '휴지기'이긴 하나 당내의 강력한 의지도 찾아보기 어렵고 정치권 안팎의 주목도 끌지 못하고 있다.

혁신실천위는 지난 5일 1차 집중토론 워크숍을 하고 이튿날 세비동결·도서관장 외부 개방 등의 혁신안을 발표한 후 이렇다 할 활동이 없다. 당시 매주 정례회의를 열겠다고 발표했으나 7일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되면서 추가 회의가 열리지 않고 있다.

당장, 국회 외교통일위 소속인 원혜영 위원장은 10일부터 중동지역을 돌며 해외 공관 국감중이고, 간사인 김기성 의원도 정무위 국감 때문에 혁신실천위에 신경 쓸 '여력'이 없어 보인다.

이에 따라, 외부인사의 위원 선임도 국감 이후에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야당의 전매 특허였던 혁신 이슈마저 새누리당에 선점당하고 있다.

새정치연합보다 하루 앞서 보수혁신위원회를 발족한 새누리당은 그간 4차례 회의를 통해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나 소속 의원의 출판기념회 금지, 세비 동결 등을 결정하고 혁신 이슈를 선점했다.

새누리당은 실천 과제를 하나씩 테이블에 올려 놓고 그때마다 결론을 짓고 있지만 새정치연합은 그간 나온 개혁안들을 한꺼번에 모아놓고 '선택 작업'을 하느라 속도가 더디다는 분석이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19일 "원래 '혁신'은 야당의 전유물이었지만 새누리당이 발 빠르게 움직이면서 오히려 변화의 움직임을 주도하고 있는 형국"이라며 "여기에 새누리당에서 김무성 대표라는 강력한 리더십을 기반으로 기민하게 움직이는 반면, 새정치연합은 당내 계파의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혁신을 리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기에 지역위원장을 결정하는 조직강화 특위도 변화와 혁신을 이끌지 못하고 있다.

당장, 지역위원장 경선 룰도 정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역 국회의원 지역구의 지역위원장 경선을 어떻게 할 것인지도 명확하지 않다.

당내에서는 현역 국회의원은 경선 없이 지역위원장에 임명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현역 국회의원이 있는 상황에서 지역위원장 경선을 실시할 경우, 내부 분란만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결국, 현역 국회의원이 없는 지역위원회를 중심으로 경선이 실시되고 결국 계파 분배의 모습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다.

조강특위 무 위원은 "아직 조강특위에서 지역위원장 선정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를 거친 상황이 아니다"라며 "이번 주 회의에서 지역위원장 선정 방법 등 구체적인 방법이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법 잘해봅시다” 새누리당 주호영 정책위의장(오른쪽 두 번째), 경대수 의원이 19일 국회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백재현 정책위의장(왼쪽)과 전해철 의원을 만나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TF회의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與 한달보름간 이례적 대규모 당원 교육

새누리당이 이달 중순부터 다음달 말까지 목표로 대규모 당원교육을 실시 중이다.

지난 15일 당양에서 시작된 이번 당원교육은 한 달 반 동안 전국 17개 시도당별로 책임 당원을 중심으로 선발된 5100여명을 상대로 진행됐다.

당원교육은 일상적인 정당활동이지만 중앙당 주도하에 일거에 실시하는 것은 흔치 않은 일이다. 지난 2011년 말 박근혜 대통령이 새누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등판"한 뒤 이런 식의 당원교육은 처음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당 안팎에선 김무성 체제 출범 100일을 즈음해 이런 대규모 당원교육이 시행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김무성 대표와 이근천 사무총장은 국정감사가 끝나면 각 지역에서 열리는 당원교육이나 당원연수 행사장을 순회하는 일정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핵심 당직자는 19일 "당 지도부로서는 단순한 이

벤트 행사라 아니라 당원들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의미 있는 자리"라며 "연수 내용도 주로 당 혁신작업이나 당 운영 철학 등의 메시지를 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일각에선 최근 원외당협 당무감사 등을 계기로 당내 친박(친박근혜)-비박(비박근혜)계간 긴장관계가 조성되는 가운데 당원교육 및 연수가 진행되는 것을 주시하고 있다.

일각에선 2016년 총선과 2017년 대선을 염두에 두고 김 대표가 당내 기반을 다지려는 '포석'이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마저 보내고 있다.

광주·전남 기능장1호 大山 프리모남녀기발



시술전



시술후



시술전



시술후

국무총리상 표창 ·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광주광역시시장 표창 · 광주남구 구청장 표창

특수기발 별매(원터치)
완전 탈부착형 테이프 X, 핀 X
원장 직접시술 1만여명 내공!

M.H.타사 신제품
~~130만원~~ **59만원**
브랜드 동급제품

이용기능장 원장 직접시술

매주 화요일, 휴무일요일 정상영업)

본점: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라인가든 상가12층
대표전화: 062673-5858, 672-4622
원장 이수채 011-607-5330

대신프리모

대산프리모기발

KBS1TV "아침마당" 생방송 출연 (백영숙 이사, 유경선 원장 출연)

빠른 성사! 결혼성사까지...

중매잘한다~ 성사잘한다~ 소문!

회장: 서울대학교 법대졸업 공공기관 다년재직
(광주 서석초등학교 졸업, 전주고등학교 졸업)

서울대학교 동문 결혼정보서비스업체
조선대학교 전남대학교

남		초혼		추천회원		재혼	
의사, 변호사, 약사, 한의사	27-45세	전문직 희망 여성	25-38세	의사, 변호사	32-65세	VIP 희망 여성	29-53세
판사, 검사, 법리사, 회계사	28-47세	오케스트라단원, 회사원	26-41세	국영기업체 기관장	52-66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63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간호사, 유치원 교사	27-42세	공무원, 교사, 교수	35-65세	공무원, 교사	32-58세
사법, 행정고시 합격자	VIP	의사, 약사, 교사	25-39세	대기업 간부	36-59세	회사원, 자영업	33-67세
삼성, 현대, LG 직원	28-47세	변호사, 회계사, 법리사	26-39세	'무출산 여성' 희망	31-58세		
은행원, 연구원	29-49세	공무원(5급~9급)	27-42세				
대(중,소)기업 직원	27-48세	정부투자기관 직원	25-38세				
사업가, 자영업	29-39세	간호사, 은행원	26-47세				
세무사, 연구원	29-48세	학원(음악)원장, 강사	27-42세				
국영기업체 직원	29-39세	스튜어디스, 영양사	26-42세				
교사, 교수	28-49세	미스코리아, 미스전북	27-36세				

임페리얼 클럽

강남역 7번출구 70m 하나은행 B/D 6층
(02) **521-4405**
호남지사 (063) **275-7766**